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보선 8명 당선



5월27일 실시된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 결과 지운, 혜정스님 등이 당선됐다.

법어사는 문중내에서 후보단일화를 위해 선거를 연기했으며, 법주사는 교구선관위가 원담스님(청주불방 전 운영위원장)의 후보 등록을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후보등록부터 다시 하기로 했다. 당선자 교구·직능 분야 및 약력은 다음과 같다.

▲지운스님(교구 수덕사): 69년 수덕사에서 해암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수지, 75년 석암스님을 계사로 구족계 수지, 정혜사에서 5하안거 성만, 수덕사 총무국장, 11대 종회의원 역임, 현 수덕사 총무국장.

▲혜정스님(교구 동화사): 72년 은해사에서 의현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수지, 76년 영암스님을 계사로 구족계 수지, 88년 동화사 강원 대교과 졸업, 현 대구 안일사 주지.

▲장주스님(11교구 불국사): 60년 법주사에서 월산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70년 석암스님 계사로 구족계 수지, 법주사에서 9하안거 성만, 11대 종회의원, 오어서 주지 역임, 현 불국사 총무국장, 법보신문 사장.

▲지광스님(17교구 금산사): 월주스님을 계사로 득도, 69년 금산사에서 용봉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수지, 76년 고암스님을 계사로 비구계 수지, 해인사 강원 사립과 수료, 82년 종합학교 교법사 역임, 금산사 포교국장, 교무국장 역임, 현 익산 송림사 주지, 익산사암연합회장.

▲탄우스님(23교구 관음사): 76년 백양사에서 서용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수지, 79년 서용스님을 계사로 구족계 수지, 백양사에서 5하안거 성만, 총무원 정보국장 역임, 현 논산 관촉사 주지.

▲원우스님(혜정): 68년 법어사에서 흥교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수지, 74년 법어사 금강계단에서 비구계 수지, 총무원 총무부장, 재무부장, 10대 종회의원 역임, 현 창원 성주사 주지.

▲동욱스님(을원): 61년 해인사에서 도원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수지, 67년 석암스님을 계사로 구족계 수지, 법어사 강원, 동국대 불교대학, 해인총림 을원 졸업, 해인사 재무국장, 생계사 총무국장, 남해 보리암 주지 역임.

▲지광스님(을원): 82년 자운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수지, 96년 청하스님을 계사로 비구계 수지, 현 농민서원 주지, 불교TV 이사,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교차로

전남대 지랑스런 동문에 법정 '따고 향기를 계 모임' 회주 스님은 8일 전남대 개교 47주년 기념식에서 전남대가 학교를 빛낸 자랑스런 동문에 게 시상하는 '자랑스런 용봉인' 상을 수상했다.

47주년 기념식에서 전남대가 학교를 빛낸 자랑스런 동문에 게 시상하는 '자랑스런 용봉인' 상을 수상했다.

현성 중앙승가대학교 총장스님은 5월31일 제1777호인 이 참석한 도선사(주지 광복) 주회 안양교도소 위문 및 수계 법회에 스계법사로 참석, 270명의 재소자에게 5계를 수계했다.

3시 군승후보생 위문 정련 조계종 포교원장 스님은 2일 군승단 운영 위원들과 함께 영천 삼사관학교에서 입소교육중인 군승후보생들을 위문했다.

청송 2감호소서 위문공연 혜철 한국불교교회복지선도회(장려사 주지) 스님은 5월26일 청송 제2감호소에서

격격인 업무에 들어갔다. 수화 친불기 발표회 해성 광림사 연화복지원장 스님은 5월 30일 서울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자비의 수화교실' 출판기념회와 '수화 친불기 발표회'를 개최했다.

택시기사·공무원에 설법 박완일 한국사회교육연구원 회장은 10일 오후 3시 서울도봉구민회관에서 개인택시 운전자, 16일 오후 5시 강동구청에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자아인식에 대해 강의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부총장에 최규철 동국대학교 수석은 지난 1일자로 동국대 경주캠퍼스 부총장에 임명됐다. 최교수는 88년 서울올림픽 공로 최우수선수, 96년 국제레슬링 공로 금장을 수상했다.

정신세계신문 금강경 특강 이재열 유마산원장은 10일 오전 10시 30분과 14일 오후 7시 서울 정신세계신문에서 '금강경' 공관(空觀) 수행법'에 대해 특강한다.

레크리에이션 포교회 회장에 정호 용인대각사 주지(조계사 재무국장)는 5월 14일 불교 레크리에이션포교회 임시총회에서 신임회장에 선출됐다.

혜명불교 양로원장에 종호 前도선사 교무스님이 혜명복지원 혜명불교 양로원장 임명을 받고 5월20일 본

운제당 영무스님 49재 봉행



태고종 승정 운제스님의 49재가 3일 서울 시간동 법륜사에서 1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49재에서 혜초스님(前 태고종 총무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운제스님이 남기신 불교교도의 원력을 이어가도록 열심히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날 49재에는 혜초(법륜사 주지) 이두(청주 관음사 주지) 도암(대승종 종정) 혜경(봉원사 전 주지) 동환(태고종 전총무원장) 대은(태고종 인촌총무원장) 무공(대륜도회 前회장)스님을 비롯한 스님 30여명과 대한불교진흥회 서문각이사장, 바른법원위원장 김원수교수, 동국대 연기영박경준교수, 달마회 김경복회장, 월간불교 송승엽주간, 현대불교 최정희 편집국장 등이 참석했다. 김원우 기자

이진형씨 대전시 불상조각 무형문화재



이진형 불교조각미술인회 회장은 5월26일 대전시로부터 불상조각 부문 무형문화재 제6호로 지정받았다. '불상조각'으로는 최초로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이진형원장은 68년 조각가의 길에 들어서 후 30년동안 전국 사찰에 3천여구의 불상을 조성한, 대표적인 불모(佛母)종 한 사람. 1995년에는 불교조각가로서는 처음으로 공평아트센터에서 개인전을 열기도 했다.

그동안 불교미술영역에서 무형문화재 지정은 종교라는 영역속에 굳게 감혀 있어 불교미술 분야에서 활동한 작가들은 일반 전통문화에서 지정받았다. 따라서 이진형 원장의 '불교조각' 지정은 불교전통미술의 영역을 한차원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내원장사 조실 석암스님으로부터 교리와 심신을 배웠고, 불모 석정스님으로부터 부처님의 상상 표현법을 배웠다"는 이원장은 "민족전통의 불교조각을 계승하고 현대불교 조각의 정형창출에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문화재 위원장에 고병익박사 재임

부위원장·분과위원장 9명 선출

5월27일 서울 올림픽파크 호텔에서 열린 문화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병익(75·사진) 전 서울대총장이 임기 2년의 문화재위원장에 재임됐다.

지난 2년 동안 문화재위원장을 맡았던 고위원장은 "문화재 38년 숙원이던 문화재청 설립 직후 새로 맡게 된 위원장이어서 더욱 어깨가 무겁다"고 했다.

고 위원장은 "문화재위원회 역시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됐기 때문에 위원회를 새롭게 자리매김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를 위해 위원회 내 분과위원회가 더욱 활성화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륵사지 석탑 해체·복원, 성덕대왕신종 타종 등 성보문화재에 대한 절제된 현안에 대해서 "불교문화재는 국가의 자산이면서 민족의 정신사이기도 하다. 따라서 '과학 보존'과 '대중적 향유'라는 두 가지 원칙에 맞춰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6일 신임 문화재위원 59명이 위촉됨에 따라 부위원장, 분과위원장 등도 선출됐다. ▲부위원장=정영호(65·한국고원대 교수) ▲제1분과(건축분과)=정영호(65·한국고원대 교수) ▲제2분과(동산)=고병익 ▲제3분과(사적)=최영희(73·전 국사편찬위원장) ▲제4분과(무형문화재)=이성현(63·전 국립국악원장) ▲제5분과(천연기념물)=윤일병(64·고려대 교수) ▲제6분과(매장문화재)=한병삼 ▲박물관분과위원장=정양모(65·국립중앙박물관장)

오종욱 기자 (gobaouu@buddhapia.com)

"불교와 기독교 폭넓게 연구"

하바드대학원서 '비교종교학' 연구 일미스님

"하바드에서 불교학연구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부디' 이 아니라 '화엄학', '천태학', '불교교단' 등을 주제로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다. 한국불교를 전공한 한국 승려로서 불교와 기독교를 폭넓게 비교 연구하고 한국불교를 널리 알리는데도 주력하겠습니다."

세계 석학들이 모인다는 미국 하바드대학교 종교학과 대학원 석사과정에 합격해 회재를 모은 일미스님이 일시 귀국했다. 동국대를 조기졸업하고 일본 용곡대 교환학생으로 선발되는 등 수재로 이름난 일미스님은 영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 독일어 등 6개국어에 능통하다. 히브리어까지 마스터할 계획. 미국과 유럽에 가보니 기독교에 한계를 느낀 많은 서구인들이 내적인 자아를 찾는 스님에 관심을 갖고 참선 요가 붐이 굉장하다고 소개하는 스님은 석 박사과정의, 불교에 관심있는 이들과 함께 스터디그룹도 만들어 연구하는 분위기를 유도해 갈 예정이다. 일미스님은 15일 출국한다. 이경숙 기자



북 돕기 '자비의 쌀' 성금 명성여교, 평불협 전달

동국학원 명성여교(교장 우하수)는 1일 식량난으로 고통 받고 있는 북한동포를 돕기 위해 전교생 2천여명이 자비의 쌀을 모아 마련한 성금 1백74만8천7백원을 평불협 북한금강수공장후원회에 기탁했다. 모금운동을 펼친 불교학생회 회장 송지영(2년)은 "불교의 자비정신을 조급이나마 실천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고 보람있게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pia.com)

호소

김봉준 화백 혈액암과 사투 불자 배호성씨 기업 자금난

불자들의 도움을 애타게 기다리는 두 불자가 있다. 80년대 들어 감로탕회에서 볼 수 있는 민중의 정반적 삶을 작품으로 승화시켜 명성을 날렸던 김봉준 화백(45·사진)이 최근 혈액암으로 사투를 벌이고 있다. 막대한 병원비는 가족들을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96년 대기업의 횡포로 도산했다가 한국불교종단협 소비재보호회와 총지종의 후원으로 재기했던 배호성씨(56)도 자금난으로 또다시 곤경에 처해있다. 설비투자를 하지 않으면 수출물량을 낼 수 없는 딱한 처지. 연락처는 김봉준 화백 (02)428-6775, 배호성씨 (0581)555-1153. 한명우 기자(mwhan@buddhapia.com)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정각원 '禪修練會' 안내

귀의 삼보하옵고,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정각원에서는 '99년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선불교 특강 및 선수련회'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다 음

- ◆ 참가대상 : 선불교와 선수행에 관심있는 분. (불교의 기초가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함)
- ◆ 일 시 : 1차 1999년 7월12일 13:00 - 7월15일 14:00 (3박4일) 80명
2차 1999년 7월19일 13:00 - 7월22일 14:00 (3박4일) 80명
- ◆ 장 소 :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정각원 법당 및 기숙사
- ◆ 접수기간 : 1999년 6월1일 - 6월30일까지 (선착순)
- ◆ 접수 및 연락처 : (우)78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 동국대학교 정각원
- ◆ 전 화 : (0561)770-2016, 2017 팩스 (0561)770-2015
- ◆ 신청비 : 100,000원
- ◆ 우체국 예금주 : 정각원, 계좌번호 : 703538-0097937-11
- ◆ 준비물 : 법복바지, 세면도구, 필기도구
- ◆ 선불교 특강 : ① 불교사상의 이해(동국대학교 불교문화대학 발행, 불교시대사 보급) ② 반야심경 강의 ③ 선의기원과 역사, 선의 토수 ④ 선불교 개설 ⑤ 선수행의 의미와 목적 ⑥ 조사선, 목조선,간화선의 수행방법 ⑦ 禪文化, 禪文學, 坐禪儀
- ◆ 강 사 : 정 성본 스님 (동국대학교 불교학부 교수) 이 만 교수님 (동국대학교 불교학부 교수) 정 유진 스님 (동국대학교 불교학부 강사)
- ◆ 인 례 : 석림회 (선학과 스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정각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정각원장 정 성본 합장

투고 환영

오는 8월에 장간하는 월간 '불교저널'은 미래를 지향하는 새로운 불교종합잡지입니다. 독자와 함께 만드는 열린 편집을 위하여 건전한 비평정신을 바탕으로 한 각종 투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 불교사사평, 한국불교의 현안을 비롯해서 21세기 한국불교가 나아갈 길을 모색하고 제시하는 글
2.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등 국민의 관심사를 불교의 시각에서 다룬 글
3. 올바른 신행을 계도하는 글
4. 스승예찬, 사자상승(師資相承)의 미담
5. 신행수기, 사찰 탐방기 등 재가불자들이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와 발언
6. 기타 편집에 대한 제안과 제보

※ 글의 분량과 마감하는 날은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 필명이나 익명도 좋습니다. 그러나 본명과 주소 전화 등 연락할 곳을 명기해 주십시오. ※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본사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보내실 곳 : 월간 불교저널사 (우)100-380 서울시 중구 목정동 23-1 신원빌딩 전화 02)2285-2421/2 FAX 02)2285-2420

원고 모집

새로운 불교종합잡지 월간 '불교저널'은 불교문학·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기성·신인인 불문하고 다음과 같이 원고를 모집합니다.

1. 불교를 소재로한 시, 소설, 동화, 동시, 희곡, 시나리오, 수필, 만화 등
2. 불교문화, 미술, 음악, 연극 영화의 평론
3. 글의 분량과 마감은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4. 필명인 경우는 본명과 전화, 주소를 명기해 주십시오
5.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본사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